

## 러시아의 대외전략 및 동북아 정책

### I. 러시아의 동북아 전략

러시아 소재 카네기재단 소장 드미트리 트레닌(Dmitri Trenin)은 6가지 동북아 전략을 제시. 이 전략은 미국 및 유럽과의 관계 수준으로 러시아의 아시아 정책을 끌어 올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 1. 정치전략

- 정치 전략은 러시아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중국과 안정되고 우호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 일본과는 현안인 영토문제 등 장애들을 해소함으로써, 러시아극동 및 시베리아지역의 기술적 현대화에 러시아의 주요 동반자로 일본을 전환시켜 도움을 받는 것이다.
- 평양정권이 연착륙을 하도록 한반도문제에 도움을 주는데 러시아의 역할을 다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통일 국가가 러시아에 좀 더 가까워 질 수 있도록 한다.

#### 2. 안보독트린

- 안보독트린은 아마도 한반도문제에 대한 현 6자 회담을 토대로 동북아를 위한 지역안보협의체 구축과 러시아와 이웃국가들인 중국 일본 한국 사이에 양국간 안보관계 체제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 3. 에너지 전략

- 에너지전략은 러시아 동북아 국가들 중국 일본 한국에 오일과 가스 공급자로 등장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 국가들로부터 러시아 극동과 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투자를 유치한다.

#### 4. 기술혁신 전략

- 기술혁신전략은 러시아의 과학과 교육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보시비르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러시아의 연구센터와 대학들이 지역 경제 전환의 기관차 역할을 한다.

#### 5.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 에너지, 기반시설발전, 그리고 과학 및 기술진보를 토대로 한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지역을 위한 새로운 지역 발전정책은 러시아 다른 지역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웃 국가들과도 더 완전하게 이 지역을 통합하는데 있다.

## 6. 과감한 이민 정책

- 과감한 이민정책은 러시아의 필요성에 부합 할 수 있는 양, 질, 그리고 인종적 다양성의 노동자원들을 러시아 극동과 시베리아지역에 유치하도록 고안했다. 하지만 국내안정에 위험을 주지 않고 효과적인 국경통제, 할당제도, 그리고 귀화의 메커니즘은 새로운 접근의 중심이 된다.

## II.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 동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제로섬(zero-sum) 상관관계와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 이 어느 지역보다 더 통용되는 곳

-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현상유지 세력으로서 미국을 인정함.

첫째, 이 지역에서 강한 미국은 중국의 야망을 견제하는데 기여

둘째, 일본의 민족주의를 억제

셋째, 동아시아에서 안정의 가장 믿을 만한 보장자로 대변하기 때문

### 1. 아-태지역에서의 영향과 러시아의 프로필 증대의 목표

다음의 3가지 광의 접근을 통해 목표를 추구하려고 함

- 전략적 다양성

- 아시아의 협조체제

- 다자참여

#### 1) 전략적 다양성

- 전략적 다양성은 현 러시아 외교정책을 정의하는 "다방향주의"가 본질이다. 이것은 하나의 "영향력" 또는 "동반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가정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국익이 러시아와 관계를 구축하는데 관심있는 국가그룹이나 개별국가들과 다양한 동반자관계의 유연성있는 정책에 의해 가장 잘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지금까지 전략적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정책은 어느 때 보다 더 중국 중심적이다. 일본관계는 영토문제이고, 한국관계는

복핵문제가 있다.

## 2) 아시아의 협조체제

유럽에서 협조체제 러시아 기득권은 엘리트주의적 운영방식(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국, G-8 등)

### (1) 아시아의 협조체제 개념 정착 못함

- 첫째, 집단적인 지역 정체성과 국경을 초월한 협력 전통이 결여. 지역문제 경쟁적 접근유지
- 아시아의 Concert의 실현은 주요강국들 사이에 대략 대등한 힘을 전제로 한다.
- 원래 19세기초 비엔나회의(1815)이후 크림전쟁(1854)까지 유럽의 Concert는 대영제국, 프러시아, 러시아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등 다소 대등한 국가들로 구성.
- 이같은 대등은 당대의 동아시아에 존재하지 않음. 미국/중국/러시아

### 3) 다자참여

- 러시아가 중요 강국들과 개인적 관계를 토대로 순수하게 아시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
- 아시아 다자정상회담에 적극 참여
- 동아시아지역과 러시아가 공동체 강조

## 2.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능력 낮은 이유

- 러시아는 일반적으로 아-태국가가 아니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유럽문명권의 국가이다.
- 러시아 외교정책결정에서 엘리트주의적 사고방식에 의해 그 효과가 반감. 다른 강국들과 직접적으로 문제를 다루려고 함. 그러나 러시아는 아-태문제에 관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역할자이다.
- 지정학적 대국에서 상호이득(positive-sum) 기여자로 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함. 이 지역에서 러시아 정책의 일부는 역효과를 내고있음. 예) 지역안보 불안 야기하는 대중 무기판매.

## 3. 3가지 광의 접근을 통해 아-태지역 영향력 증대

- 이 지역 영향력 증대 목표 달성 실패.
- 세계강국으로 다시 부활이 외교정책의 우선.
- 이 임무는 지역강국으로서 러시아의 재 부상과 다른 주요 강국들과 관계에서 대등한

동반자로서 러시아의 국제적 인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들의 수행이다.

### III. 푸틴의 아시아-태평양 노선과 동북아 전략 목표

#### 1. 강대국 지위회복을 위한 3가지 목표

- 구소련 지역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강국으로 재부상
- 주요 강국들과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제적 인정
- 동시베리아와 극동을 발전시키는데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과 지역 통합에 적극 참여

#### 2. 푸틴집권 3기 러시아의 동북아 외교정책과 전략목표

- 강국이 되기 위해 우선 경제발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발전 필수적
- 러시아 국토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세계 극의 하나로서 살아남는 전략
- 아시아지역에서 러시아의 약한 정치적 프로필을 끌어 올리는 외교적 노력

#### 3. 동북아 외교정책의 3가지 전략적 목표

- 급속하게 발전하는 아-태지역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는 정책 추진
- 아-태지역의 협력체를 통해 지역 협력을 증진. 이들 지역 국가들과 관계심화, 투자나 기술도 유치하여 극동지역을 발전시키는 것
- 안보적인 불안정과 위험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 안보협력에 적극 참여

### IV. 동북아 국가와의 관계 유형

#### 1. 중국과의 밀월관계

##### 1) 3가지 측면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

- 정치관계를 심화발전

-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개발과 발전에 있어 중국을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

- 지역 및 국제문제 조정 및 해결과정에서 중국과 정책적 협력 노선을 견지

## 2) 러시아의 고민

- 무역의 불균형, 불법이민 문제, 불법무기 복제 등 갈등요인존재

- 극동지역에 중국의 경제적, 인구학적 영향력 확대

- 중국의 영향력 견제하기 위해서도 동북아 국가들과 협력확대를 통해 극동지역을 발전시켜야 함

## 2. 일본과의 개발유입과 중국 견제

### 1) 동북아의 불확실한 미래

-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

- 다자안보 기반 취약한 동북아

- 북핵문제

- 에너지 문제

- 영토문제

### 2) 푸틴 3기 대일외교 목표

-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 지역 강국들간 세력균형을 위해 일본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필요

- 러-일의 경제협력 강화문제: 경제현대화와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과 발전을 위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본기업 진출기대

- 영토문제 해결로 관계 완전 정상화기대

- 중국에 대한 대항세력으로 일본. 관계를 한단계 격상시켜 중국의 상대적인 영향력 하락을 고려 안보와 안정의 두 가지 조건: 동북아 강국간 힘의 균형유지, 지역분쟁의 국제화 막기 위해 지역분쟁억제

### 3. 러시아와 한반도

#### 1)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목표

- 한반도의 평화유지
- 남북한에 대한 균형적인 관계발전
-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및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추구

#### 2) 한반도 접근전략

- 남북한과 정치 및 경제관계에 있어 선린 우호협력 체제를 추진
-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과정에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희망 남북러 3국 경험 적극추진
- 한반도 비핵화로 동북아지역의 평화체제를 구축

### V. 러시아와 동북아관계 전망

- 유럽의 재정위기로 동아시아에 대한 경제협력 확대필요
- 강대국 지위회복을 위해 동아시아국가들과 실용주의적인 아시아 중시외교 강화
- 극동지역 근대화를 위해 이 지역 경제 활력을 흡수하고자 하는 의지 보임
- 동북아 지역 국가들로부터 기술, 자금, 제품판로 확보와 함께 이들 국가들과 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 1. 러-중 관계 전망

- 안정된 정치관계와 긴밀한 경제관계를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고화
- 장기적으로 신뢰강화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장기 전략을 수립필요
- 중국 편중의 동북아 정책에서 벗어나 외교의 다변화 준비
- 이런 측면에서 일본과 남북한 관계를 더욱 강화

## 2. 러-일 관계 전망

- 러시아의 과제는 일본과의 호혜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
- 2010년 11월, 2012년 7월 구나시리 분쟁섬 방문 양국관계 최저수준
- 푸틴의 재집권으로 관계회복 기대
- 영토문제 기본입장 유지한다면, 해결 어려움
- 경제협력을 통해 영토문제 해결 한계

## 3. 러-한반도 관계 전망

- 한반도 정책 큰 변화 없을 것으로 보임
- 푸틴집권 1기-2기 추진한 균형외교의 기본원칙 유지
- 이웃 국가로서 한반도 불안정 원치 않음
- 이 지역 안정을 위해 한반도 문제 적극적으로 관여 할 것으로 예상
- 한반도 안정 유지하는데 조정자 역할
- 남북러 경제협력 사업관심
-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해 6자회담 재개노력